

제426회 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6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보건복지부 소관
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가. 보건복지부 소관
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2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3  
가. 보건복지부 소관
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 3  
가. 보건복지부 소관
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 3  
가. 보건복지부 소관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권성동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모시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참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건복지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면서 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리고 이게 사임·보임 이런 차원은 아닌데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 애를 써 주신 한 분이, 저는 보내 드리기 싫은데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가신다고 그래 가지고 인사말씀을 좀 듣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선우 간사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장관님 후보로 추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양전하신 분이 아닌데……

(웃음소리)

○강선우 위원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께서 여가위로 오시겠다고 그러서 가지고……

지난 국회 때부터 계속해서 보건복지위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제 심장의 한 켠은 늘 보건복지위에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많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무엇보다 귀한 성장의 토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여쭙고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제가 김미애 간사님의 여가위 사·보임을 기필코 막겠습니다.

(웃음소리)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1시04분)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청원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심사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청원심사소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기간 연장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청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려서 의사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백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아시겠다고 그러신 거지요?

○백종현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등 5건의 청원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2025년 9월 30일까지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보건복지부 소관

## 3.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4)

가. 보건복지부 소관

## 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0995)

가. 보건복지부 소관

(11시06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진작 등에 중점 투자하여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조속히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증액 규모는 총 1975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위기가구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치료 체계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과 의료 분야 AI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감액 규모는 총 2278억 원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복지부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경기진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관심 아래 추경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편성안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바이오헬스산업 AI 활용 역량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에 134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추가 공급하고 긴급복지 지원도 2만 8000건 확대합니다.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산모·신생아 전담 이송안내팀을 운영하고 10개 지역 모자의료센터 산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검사 비용을 13만 2000명에게 추가로 지원합니다.

바이오헬스산업 AI 투자입니다.

임상전문가 대상 의료 AI 분석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신약 개발 단계별 AI 실습 교육 제공과 AI 기반 신약 개발 임상시험 설계·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현 계획과 동일한 100조 7578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은 303억 원 감소한 125조 4846억 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 대비 예산은 400억 원 감소하였고 기금은 9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분야별 총지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791억 원 증가한 107조 2709억 원, 보건 분야는 1093억 원 감소한 18조 2137억 원입니다.

8쪽부터 24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문별 상세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수입은 현 계획과 동일한 99조 3621억 원이며 지출은 97억 원 증가한 53조 1425억 원입니다.

26쪽 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 변경안 및 응급의료기금 변경안의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검토보고 요약본 2쪽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1235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월 현재까지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관련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감액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9월 이후 전공의 복귀율을 50%로 가정하여 예산 불용액을 산출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가정한 전공의 복귀율이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목표의 상한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기반구축 사업은 추경안에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인 등이 AI 기반 혁신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 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 예산을 신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총 1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을 교육할 예정이지만 직무교육 대상, 전달체계 및 지원 방식 등의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미비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안에서 3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료데이터 보유기관과 기업을 매칭하는 내역사업인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산업현장 활용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인 의료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 17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산과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의사 당직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산아 등 고위험 출생아가 증가하는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과 전담팀의 시범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여 전담팀 규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모자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을 현행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종료 이후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회의를 길게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원회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첫 민생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국민 혈세는 없는지 살펴보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시급히 반영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띄워졌나요? PPT 띄워졌습니까, PPT?

○위원장 박주민 예, 띄워졌어요.

○서미화 위원 복지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살펴보니깐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 작년 기준 실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330억이 불용 처리됐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5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예산 심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부적절성을 많이 지적했었는데 그런데도 복지부는 433억 중에 105억만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PPT를 또 보시겠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제시한 수혜자 추계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24년의 경우 근거가 없이 그냥 23년 청년 마음건강 대상자 1만 5000명의 5배나 되는 8만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전 국민 연령대를 포함해 가지고 4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5억에 대한 감액의 근거가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치를 내 가지고 6 곱하기 12개월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수백억 사업이 시범사업 한 번 안 하고 기획 또 추진 대상, 추진 진행 등이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국민 혈세를 쓴다는 것이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다음 PPT 또 보시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제출한 사업 적정성 검토 자료입니다. 총사업비 7900억 중에서 최소 2650억에서 최대 4660억이 과다 책정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다음 PPT를 좀 보시면요, 이 사업은 작년에 330억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해서 30%에서 최대 60%에 해당하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정부가 전년 대비 7% 넘게 또 증액을 했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에 수천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식의 특혜를 받은 사업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장관님께서도 기재부 출신이신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연간 총예산 수백억에서 수천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대형 사업이 예타 면제는 물론이고 시범사업도 생략됐고 사전에 사업 적정성 검토도 없이 수백억이나 되는 예산부터 이렇게 밀어 넣는 경우를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작년에 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에 관한 우려를……

○**서미화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정말 기재부 공무원으로 제실 때라든지 이럴 때 본 적이 있나 제가 여쭙본 거고요.

다음 PPT 한번 또 봐 주세요.

게다가 이 사업은 현장 의료진들이 보이콧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전부 무시됐고 예산과 수혜자 수를 부풀린 졸속 사업임이 이미 확인이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정말 이 사업이 김건희 씨 꼬리표가 붙은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삭감 규모를 재조정해서 오후에 있을 예산소위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서 조정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집행 실적을 봐서 한 105억 원 정도 추가 삭감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안을 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장관님, 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밖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장마철이고 더운 여름인데 100배 오체투지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PPT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5월 말 기준 대기 인원이 28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수천 명에 해당되는 대기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작년, 재작년 계속 대기자가 수천 명이었어요. 사유를 불문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수천 명이 속절없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맞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서미화 위원** 예, 반영이 안 됐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미화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정말 처절한 요청을 제발 좀 외면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배정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800명이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라도 더 추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배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습니까?

○서미화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대선 이후 열리는 첫 상임위의 첫 추경안 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김건희 예산이라 불렀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불러오겠다고 만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16만 명이라는 다소 허황돼 보이는 목표 대상에 우려를 표하고 대폭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속도감이 붙어서 집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차관님의 설명이 있었고 소위 김건희 예산을 지키겠다고 심리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학폭, 자살률까지 언급하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결국 국회 제출 예산액 508억 대비 약 75억 정도만 삭감된 채 433억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시행 6개월 만에 복지부 스스로 총사업비의 25%가 되는 105억 원을 감액하자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2991억 원의 41%가 되는 1235억 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 예산심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이 돌아올 때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당시 여당 위원님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 원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장관님, 당시 야당 위원들이 삭감하면 나쁜 시그널이고 지금 복지부가 삭감하면 좋은 시그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의료공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전공의 복귀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김선민 위원 당시에는 나쁜 시그널이라고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최선을 다했다고……

○김선민 위원 그때 예측 못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80%까지는 복귀율을 끌어올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못 해서……

○김선민 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런데도 복지부는 아직도 9월 이후에 전공의의 50%가 복귀할 거라고 낙관하시면서 이번 삭감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1000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안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대규모 자체 삭감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장관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할 때는 잘 쓸 거라고 두 가지 예산안 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상반기 지나서 이렇게 슬그머니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자체 삭감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복지부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장관님, 사과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 복귀는 저희가 추경안을 낸 이후에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또 삭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마음투자사업은 아까 서미화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대답을 드렸는데 이 건은 그때 당시에 끝나지 않았던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적정성 재검토 결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초 본예산이 적정성 검토 이내에 있어 가지고 저희는 집행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추가로 삭감액을 냈는데 추가 삭감액이 확정되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서울 강남갑의 서명옥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명옥 위원**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새 정부 탄생 20여 일 만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17개 부처에서 단 4개 부처의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중 한 곳이 우리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증액된 사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 중 30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감액을 쉽게 수용하시는 정부 부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불가피할 경우에만 감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서명옥 위원** 예. 이런 엄중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내정 소식은 깜깜

무소식입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복지부장관 추천은 쏟아지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관 지명은 안갯속입니다. 가장 유력했던 후보자 한 분은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배우자의 주식 투자 문제로 낙마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누가 장관이 되시든 간에 코로나19 대유행과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까지,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 직원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를 올곧게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오시기를 간곡하게 저는 희망합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발의를 하였고 전공의들의 권익 개선과 또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전공의들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환경 조성을 위해서 25년 본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하고서는 되려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 이상이라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곧 있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앞두고 전공의들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간의 불신만을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장관님,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편성한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명옥 위원 최소한 해당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오해와 불신을 막을 수 있고 오랜 의정 갈등 사태를 조속히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다음 두 번째 제 질의 후에 같이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명옥 위원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예산을 이미 삭감하였습니다. 500억을 삭감하고도 이번 추경에 637억을 또다시 삭감하였습니다. 새 정부 첫 추경이니 당장 활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삭감한 것은 조금은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기초연금이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 예산을 복지부가 쌔짓돈처럼 쟁여 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처럼 꺼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건드리면 우리 어르신들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기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원 마련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처럼 쌔짓돈 예산을 쟁여 놔다가 필요하면 쉽게 꺼내 쓰는 이런 운영 방식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표 복지공약의 재원 확보를 하는 방안과 정확한 재정추계와 정책 설계 방식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첫 번째·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일부 사직 전공의분들께서 복귀 의사를 밝히셔서 가지고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복귀 의사 발표가 저희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환영을 못 했는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만일 그때도 가시화가 안 되고 7월 말이나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약속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축소하거나 저희가 지원 금액을 감소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 물가상승률 예측이 2.6%였는데 실제 실적이 2.3%로 나왔기 때문에 0.3%p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옥 위원 예, 나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장관님, 먼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거의 30여 년 가까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인데요. 현재 이 사업이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온 사람 중의 몇 %나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금 한 3만 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 위원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온 사람은 전체 한 4만 명 정도거든요. 그중에 현재 사업대상자로 포함된 사람들은 한 3만 명 정도여서 75%밖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윤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한 번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의 자살률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서 20배나 더 높고 이 사업으로 잘 관리를 하면 자살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만 명 관리하고 있는데 4만 명으로 늘리면 연간 자살자를 한 육칠백 명 정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예산만 5억 원을 증액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사업의 대상을 전체 응급실로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집행상에 있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시도자, 가장 고위험군이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로 대상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 위원 예, 현재 참여기관이 90개인데 전체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을 포함하면

아마 응급센터의 개수가 한 150개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윤 위원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게 명백하긴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게 복귀하려고 하는 전공의들의 어떤 의사·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 항목 안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련환경이 워낙 부실해서 새로 프로그램들도 충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만들고 수련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도 교육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게 책정된 예산이 18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에 공통으로 배정된 예산, 그러니까 인턴하고 공통 수련프로그램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16억이고 나머지 2억을 8개 학회의 수련프로그램 개선의 예산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학회당 25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에서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수련프로그램을 전문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응급의학과 수련프로그램을 보여 드렸는데요.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수련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 넣기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의 수련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리고 8개 학회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은 필수의료 영역의 학회를 우선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성형외과 교수가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재건 수술을 하면 그것도 필수의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필수과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전체 26개 전문과목의 수련프로그램 개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작년 11월에 예산소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으로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예산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련이 굉장히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학회들과 협의를 해서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습니까?

○김윤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너른고을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를 위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위험군 발굴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은 저희가 상담을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청년들 온라인상담을 최근에……

○소병훈 위원 아니, 발굴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추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의들의 추천을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깐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시스템 자체가 복지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로 경찰이나 소방 쪽의 의견을 듣거나 거기에서 받는 자료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고교생 3명이 부산에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지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청소년·청년 자살률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최근에 또 급증하는 게 문제입니다.

○**소병훈 위원** 2등이지만 10만 명당 12.5명이 뉴질랜드고 12.4명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년의 경우는 소득 제한 없이 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비청년의 경우는 여전히 중위소득 120%인가요, 소득 제한이 존재를 하고 노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살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고위험군 발굴이랄지 치료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재정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는 확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요새 자살률이 가장 급증하는 청년층을 일단 타깃으로 해 갖고 먼저 했는데 이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요건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게요. 이 자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권의,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부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것이 문제는 문제인데 이번에 25억 4600만 원 증액인가요, 그쪽이? 그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는 고위험군 발굴에 복지부의 자체적인 발굴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에 없었지만, 소방이나 경찰하고만 협조하고 응급실하고만 협조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고위험군 발굴에 대한 자체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본 위원도 경기 하강기에 정부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재정 집행을 하더라도 이게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추경 30.5조 원을 제가 톺아보면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소득주도성장 2탄 혹은 포퓰리즘 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제안되고 있는 추경 내용의 구조가 부정적인 효과 최소화,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 경제 전문가시니까 총론부터 조금 여쭙볼게요.

재난지원금 방식,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방식을 지금 현재도 차용을 하고 있는

데 소비증대 효과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처에서 여러 번 토의를 해 가지고 보편하되 맞춤형 지원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약간의 선별조치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편형 현금지원이고요. KDI 연구 결과에 보면 승수효과가 0.26~0.3입니다. 100만 원 쓰면 소비지출 효과가 이삼십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재정 승수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러면 30조 원 곱하기 3 그러면 3분의 1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것을 왜 하는지? 복지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0.5조 원 중에 복지부 예산 증가가 얼마지요? 2000억 정도, 채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순증이 2000억……

○**안상훈 위원** 제가 조금 이따 건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다 취약계층에게 집중해서, 취약계층한테 들어가는 현금지원은 바로 소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30.5조 원에는 그 전략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혹시 추경예산 위한 이번 재원 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의식 없으신가요? 전액 국채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세입경정 등도 해 가지고……

○**안상훈 위원** 국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자의 이자를 낳아 가지고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우려가 있지만 또……

○**안상훈 위원** 고담준론 필요 없이 요약해서 얘기하면 현세대는 복지잔치하고 미래세대 빚잔치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지만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쭉 되어 온 것으로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적절히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가 이번 추경 재원 마련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민생이 회복되고 또 소상공인이 영업을 할 수 있어야 청년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상훈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지출의 승수효과가 지금과 같은 보편 지향 현금 복지로 달성될 수 없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보 관련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도 건보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행정비용으로 지금 건보만 49억이고 행안부까지 합치면 600억 들어갑니다. 이런 돈, 행정비용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지원을 소득

하충부에 집중했다면 건보를 통해서 계산하고 이러는 것 필요 없이 정말 어려운 분들 집중 지원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 좀 국무회의에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무회의에서 깊게 토론된 적은 없는데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걸 보편 지원할 것이냐 선별 지원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참 오래된 논쟁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편 맞춤형으로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또 승수효과와 관련해서는 SOC 사업 같은 것이 승수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민생지원금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참여해 가지고 토론한 적은 없는데 저희는 하여튼 간에 보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건보공단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보건복지위 유일한 농촌 지역구 의원 이개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평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시니까 임기 끝까지 정부와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전남 통합의대 설립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장관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그때마다 장관님 말씀은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된 내용이나 논의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남도에 의대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 공약, 전남 지역의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잘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국정기획위원회하고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재임기간 끝까지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시다만 전공의 육성 관련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이 41.3%가 삭감이 되었는데 비도가 전공의 육성 그리고 간호인력들에 대한 취업과 실습교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공의 관련인데 전공의 복귀 문제가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약간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삭감을 한 사항이 지금 현실을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다시 좀 재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도 협

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 위험군 발굴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청년세대의 고립과 은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40억이 편성이 돼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년 3월부터 본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업의 대상이나 집행, 절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개호 위원** 시스템 구축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재정 당국을 저희가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추가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의료급여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7월 15일까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는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또 상당히 반발이 큼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을 종합을 해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료원 속초 청주 강진, 이렇게 4개 의료원에 서 36억이 넘게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다수의 지방의료원도 간신히 임금체불 사태를 막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라고 예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가 됐고 그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니까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데 5년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코로나 회복 지원을 위해서 추가 국고 지원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한 4개 의료원에 48억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확정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지자체하고도 독려를 하고 또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좀 증액



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원의 임금체불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위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진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정부가 책임져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이 1차 사업을 넘어서 2차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야간 전담 등을 맡는 추가 간호사 지원 그리고 휴가 등에 대한 대체 간호사 지원 이 두 가지인데 그중에서 대체 간호사 지원 예산만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시범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교대제 근무 방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야간 근무 등을 전담하는 추가 간호사 지원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기본 방향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재원이 원화가 되는 문제는 저희가 신중검토해야 되겠지만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당초의 정부 목적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보 활용 등을 통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건보만 건정심에서 통과가 돼야 될 텐데 그게 또 쉽지 않으면 국고에서도 검토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업 감액안을 보면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원활하지 않고 또 복귀에 관해서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의대생 유급·제적 문제에 교육부는 더 이상 특혜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교육부와 TF 구성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셔야, 위낙……

전공의가 만약에 많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복귀를 해도 9월부터 일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장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러면 9·10·11·12, 4개월인데 4개월에 대한 재정이 아마 필요할 텐데 이렇게 필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제가 방금 질문했던 것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이 원칙적인 것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이수진 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답을 좀 주세요, 좀 길어지실 테니까.

이 전공의 복귀 늦어지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전공의가 술기 훈련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1명의 의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장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업무 범위를 포함해서 전체 의료인력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료현장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면 또 지역 간의 업무분장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분들의 요구사항은 귀담아듣되 또 다른 지역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나머지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최보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그중에 이번에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30억 원 추경안 반영한 것 봤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예산편성의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센터를 중심으로 구축 중인 K-큐어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도입 사업도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있습니다.

○최보운 위원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신사업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이 필요하고요.

그 이유는 의료 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 각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다음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을 제시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오늘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운 위원 이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희귀질환 사업도 있지요. 또 건강보험 사업도 있고 또 마이 헬스웨이드도 있고 의료기기랑 신약 관련해서도 다양한 데이터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수록 활용도가 높아지고 또 가치가 역시 극대화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의 AI 기반 플랫폼 구축이 단순한 데이터 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려면 연계 구조 및 검증체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사업이 반영이 됐겠지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면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통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통합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인력 확충과 유관 사업의 연계까지 철저히 검토가 필요함

니다. 이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중요한 사항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또 마지막으로 희귀질환 등록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병청장님 오시지 않아서 관련해서 장관님께 여쭙본다면, 희귀질환 등록사업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또 다른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60만 명 이상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정확한 통계는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 추진이 되지요, 이 사업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성과가 나오려면 사실 예산도 중요한데 전국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올해 편성된 예산이 사실 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전담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등록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부담을 넘어서 사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검증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최보윤 위원** 또한 이 부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을 사실 단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 예산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 또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종태 위원** 대전 서구갑 출신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의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생 회복에 목표를 두고 편성된 예산인데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 예산은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을 매칭으로 해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또 기초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 있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매칭 그 자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감액 사유에서는 불경기 시 사업 활성화의 악영향을 감안해서 감액을 했더라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 감액을 통해서 증액이 되는 것은,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만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지방이 소외받는 그런 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런 것이 좀 해소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런 식의 서울 중심으로의, 모든 여타 예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울 중심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난 예산편성 시에 의견을 냈던 사항이기도

한데,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에서 아동용품구입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은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방 취약계층 아이들의 편성이 제외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 사업의,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이 사업에도 성과달성지표에 가입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장종태 위원 매년 목표치가 사실 연도별로 보면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한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또 하향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의 부진, 불황에 의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하향되는 것이냐, 사업의 추진 주체 기관이나 업무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목표치를 채우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것도 분명히 검토를 한번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자살예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명 정부에서부터 자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더 강화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작년 자살자 수를 보니까 1만 4493명에 달해서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자살률 세계 1위를, 이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느냐. 보니까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왜 매년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살예방 홍보예산이 금연 홍보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연간 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제가 알기로 자살 모니터 신고 건수나 이 내용을 보면 40만 건 정도가 1년에 신고가 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위험성 있는 모니터링을 삭제하고 하는 것도 6만여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3000여 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명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이 소소한 부분에 예산도 좀 투입을 하고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강화된 대책을 한번 세워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아동발달지원계좌와 관련해서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이상으로 지방에서는 추가로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이 예산은 서울 예산하고 지방 예산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는 지역의 균형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문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과가 계속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라든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부터 전담인력 1명의 운영예산 3000만 원이 쏙 이어져 왔는데 이것도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광주 북구를 전진숙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질의인데요 저 현안질의 짧게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온요양원에 관해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조사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저희……

○전진숙 위원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환수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는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진숙 위원 위생원과 관리인의 인력배치 기준 및 추가배치 기준 위반으로 총 14억 4000만 원의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또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5월 19일 판정 결과 신체적·성적 노인학대도 발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2년과 23년에도 각각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장기요양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이것 양호하다고 그냥 지나갔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때에 적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전진숙 위원 지금 온요양원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등이 일가인 ESI&D라는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고요, 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역시 똑같은 법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요양원과 식자재 업체 간에 회계상의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한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환수 결정을 하겠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수사 당국에 고발을 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일단 정부는 조사 결과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불러서 쪽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한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전진숙 위원 실은 온요양원 언론보도 나가고 나서는 저희한테도 계속 공익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 그 요양원에 대해서요?

○전진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특사경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는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서, 실제 본예산 이후에 의원님들이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증액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찾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중 하나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고 그중 하나가 지원주택 확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명 환자 중에 1명이 통원이 가능한데, 선택입원군 환자이고요. 선택입원군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66.8일입니다. 전체 입원환자의 입원일수가 평균 7일인 것에 비하면 9배가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돌아가더라도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거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라고 본다면 중간에서 중간집이나 이런 방식을 운영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광주에 또 좋은 모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실은 지난 본예산 심의 중에 아마 새로운 주택이나 이런 방식으로 타운을 만들면 최소한 100억 정도 드는데 그것까지 할 수 없다 하면 돌봄타운에 대한 시범사업 연구 명목으로 1억 원 정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오케이가 됐던 사안인데 이번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 심의 때 소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조규홍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이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WHO는 현재 넥스트 팬데믹 1위 후보로 조류인플루엔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그냥 밀어붙이면서 감액이 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비축 예산 70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으로 우리나라의 AI 백신 비축의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지금 돈이 있어도 백신을 사실은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사들이 아시겠지만 AI 선제 대응에 나선 다른 국가들과 이미 공급계약을 전부 체결을 했고 또 추가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영국 시쿼러스사의 백신 주노틱인데 이것도 물량

이 한 10만 도즈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계약 상태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다른 국가는 우리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480만 도즈, 영국은 프리 펜데믹 대비로 500만 도즈를 비축했고 그리고 유럽은 4년간 4000만 도즈, 일본은 자체 개발 생산체계 확보를 했고 2000만 도즈를 비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혀 없고, 1도즈도 확보하지 못했고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증액하는 건 아닌데 이걸 보건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꼭 그 금액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지아 위원 국내 유일 식약처 승인받은 AI 백신, GC녹십자 게 있는데요. 그건 클레이드1 계통이고 최근 유행하는 H5 클레이드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주노틱 1종에 국한되어 있는, 그 1종에 대한 백신은 한 10만 도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30억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좋은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인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질병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창백신에 관한 겁니다. 보건안보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북한과 군사적 대치 중인 우리나라가,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화학무기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아시지요, 장관님? 생물테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백신 비축·관리하고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한지아 위원 그런데 백신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신은. 그런데 현재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두창백신 중 상당 비율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가안보상, 보건안보상 수치를 알지만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만료된 두창백신 중에 절반 이상이 5년이나 경과돼 있고 생산 후 10년이 경과된 백신이 전체 비축량의 한 29%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 백신을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축 백신의 경우 백신 자급화 측면에서 우리가 생산라인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고려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시기 전에 꼭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WHO 권고사항 등을 기초로 해 가지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추경안에 반영돼 있는 신규 바이오 R&D 사업들은 양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 강화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지금 AI 모델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 K-AI 신약 개발 전임상·임상 모델 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약 개발 단계 분류 기준으로는 인프라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3년도 KISTEP의 신약 개발 관련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신약 개발 관련 정부 R&D 지원 중 35%에 해당하는 게 인프라라고 임상에 대한 지원은 8.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약바이오산업 현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신약 개발 상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상, 특히 2·3상에 대한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안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또 바이오 제약사들의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유연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임상 2상·3상에 대해서는 좀 강화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는 후보물질을 도출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임상 그다음에 검증 단계, 전 주기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위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희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목소리를 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비율이, 인프라에 30% 넘는 비율이 있고 임상은 8%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사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시장보다 3배가 돼 있는 바이오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 먹거리로서 아주 세심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자리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제가 몇 가지를 보고 왔는데 오늘 주신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경까지 하고 있는데도 디테일들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액이 된 부분들 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전공의라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이고.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계획이 구체적인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전문의나 수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분명히 이게 몇 명이 들어오건 상관없이 앞으로는 수련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미리 세팅을 하려면 또 비용이 들거나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전공의가 n수가 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앞으로 개별 수련병원에서 일을 진행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간호인력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해서 할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증액 논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문제 되는 게 AI 관련해서 보건의료인 직무교육 이것을 증액은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사업계획을 찾아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민간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의료 AI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데이터 관리자들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민간이랑 훨씬 더 협력을 미리 잘해 놓으면 거기서 그 전 해의 지원자를 받아서 민간과 협력해서 보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보고에서도 사업계획이 미비하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면 디테일이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

데이터 활용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금 IRB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DRB 하려면 국제 규격을 충분히 초반부터 맞춰 놔야 앞으로 이것을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플랫폼 구축 예산을, 지금 이것을 추정 증액을 30억 이상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것 나중에 바꾸는 데 돈 더 많이 들 거거든요.

이번에 응급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이틀테면 한 40억 정도를 한 번에 줘서 제대로 데이터 구축을 하면 그게 충분히 잘 돌아가서 한 10년을 쓸 것을 4억씩 찢끔찢끔 매년 주니까 이상한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고 데이터는 데이터대로 활용이 안 되고 맨날 에러 나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다음 해에 또 소량 예산을 가져와서 그것 수리·보수하는 데 불필요한 예산이 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살관리 이것도 보면 지금 양당에서 다 자살, 마음건강 관련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살예방이나 마음건강 사업이나 사실은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바뀌건 국민의 정신건강을 연령과 상황에 맞게 잘 끌고 나가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이전 정부에서 하던 사업과 새 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연계성 있게, 사람도 사업도 예산도 중간에 누락되는 것 없고 ‘전 정부 거니까 날려야 돼’라는 이런 취지로 휴지가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살 관련해서는 2011년 이래로, 지난주에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 모든 연령이 약간 감소를 해요. 그런데 10대만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이주영 위원 작년엔 최고를 찍었는데 다 감소하고 10대만 올랐다는 것은 10대에서의 자살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응급실 관련된 것도 보면 연령대가 15

세~34세 이렇게 러프하게 청년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 집행을, 뒤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12세부터 시작해서 20세까지 그냥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20세부터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모든 영역에서 다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되고 연령 하향해야 되고 10대 자살은 따로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 좀 디테일을 살려서 해 주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낭비되는 예산이 조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응급의료기금 관련해서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사업에서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남은 인력들이, 대부분은 간호사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간호법 사실상 졸속으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현장 간호사들은 훨씬 더 업무 영역에 있어서 취약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권한을 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도 않으면서 기존 인력으로 업무를 부담해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사업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 인건비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현장 간호사들이 안 다칩니다. 이게 예전에는 레지던트 1년 차 정도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잘되고 있어서 이것만 해 주면 완벽해집니다라는, 대표적으로 이른둥이 예산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쓰면 100% 효과를 볼 수 있고 불용도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2026년도에는 꼭 이른둥이 관련된 예산 또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결 아마 이제 들어갈 텐데,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비에 대해서 미지급금이 356억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올해 예산을 당겨서 집행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못 주고 계속 미루다가. 그런데 사실 우리 세금도 체납하면 이자가 붙는데 이런 것들 정부에서 줄 때는 이자 없이 대부분 그냥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미지급금이 나중에 다음 해 1년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반복이 되면 현장 혼란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참여에 좀 소극적인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예산편성하실 때는 꼭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예결소위에도 그리고 또 행정부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의료 관련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만큼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적은 예산으로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른둥이 예산, 그다음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질병청 예산인데 필수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장관님,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과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이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이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남희 위원 새 정부의 핵심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년 3월에 시행하잖아요. 시행하는데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통합돌봄을 위한 준비를 잘해 나가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직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의와 인프라 구축 확대 필요성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이게 9개월 뒤에 시작을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결국 9개월 뒤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려면 지자체별로 특화된 돌봄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 지자체별 축적한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35개소에서 119개소로 확대 운영하는데 국비 예산 지원이 없어서 사업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 없이 기술지원형으로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희 위원 당연히 이걸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자체 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부족한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이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전달체계 운영한, 전문가들 자문회의 등 필수 예산도 보충하고 지자체별 담당자들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한 교육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상황을 보면 내년 3월에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지금 그러면 어떤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복지부 내에서 점검을 빨리 하셔서 가지고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곧 어차피 추경은 진행이 계속될 것이고 잘되었으면, 정말 민생 회복에 맞게 좀 분배가 되었으면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경에서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약 13조 2000억 원 가까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예지 위원**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지요. 그리고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지금 예정인데, 갑자기 왜 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 비슷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경로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될 텐데 그때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신데요. 이게 위생업종으로 들어가서 코드번호가 달라서 이런 선불카드니 신용·체크 카드니 포인트 차감이니 상품권이니 이런 적용이 전혀 되지가 않았었던 거지요.

시각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이게 안마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엄연하게 의료법 제82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그곳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보직종으로 갖고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예지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가운데, 이게 경기진작이라든가 다양한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고르게 이분들한테도 다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안마원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것 하기 전에, 혹시 이걸 좀 점검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인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방식이라든지 지원 대상 같은 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이게 업종코드 때문에 차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던 거거든요. 이것을 좀 잘 살펴 주셔서 안마원에서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정말 어려우세요. 코로나 때만큼 어렵다고 하시니까 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그냥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시고 그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건강 증진에도 안마가 혈액순환이나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저희 의원실로 좀 결과를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마음투자사업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집행을 저조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정신건강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지만 이 마음투자사업이 왜 이렇게 실집행이 안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게, 어느 정부에서라도 이거는 중요하게 다루어질 거고요.

전 연령에 있어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강조하셨듯이 우리나라 자살률 전 연령에 걸쳐서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위험군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담이나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게 이 마음투자사업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맞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과 준비하고 있는 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계속해서 삭감되거나 등한시되지 않고 중요하게 챙겨져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상담 서비스, 심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예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신규사업 중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가명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가명화……

○**김예지 위원** 가명 처리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사건이 있었지만 SK텔레콤에서 정보 유출된 거, 원하지 않는 정보 유출 그리고 또 적십자사에서도 헌혈했던 분들 정보가 나가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이거를 공모로 하실 건가요, 스타트업 공모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김예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그분들이 계획서에다 공모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지부에서 공모 선정하실 때 허술하게 계획이 세워진 스타트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또…… 이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환자들의 개인정보고 그리고 병에 관한 정보도 있을 텐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혹시 이런 걸 좀 챙겨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데이터 활용은 병원에서 가명 처리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비용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담은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의료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그래서 공모하시는 스타트업들께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챙겨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해외 투자나 폐업이나,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위기를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투자 손해, 이거 저희가 추경으로 정말 어렵게 만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공모 시에 계획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모를 좀 철저하게, 공모 요건 크라이테리어(criteria)를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이 공모 절차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백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현 위원입니다.

장관님,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약 300억 원 감액한 1210억 43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2025년 본예산에 약 1510억 원을 편성했는데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긴급추경 재원 마련 및 집행 불용예산을 이유로 올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감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급추경을 위해서라지만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까지 집행 실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건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고 그걸 관리하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 없이 대상군만 크게 늘어나서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데 또한 지자체에서도 고생 중이신데, 2025년 현재 기준 이 사업의 가입 아동 수와 전담인력이 각각 몇 명인지 알고 계시는지? 또 가입 아동은 19만 명인데 전담인력이 5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4만 명에 달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게 그런데 지자체에 또 전담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백종현 위원** 어쨌거나 많이 부족하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백종현 위원**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가정에 수급자격이 중지된 탈수급 아동이 된 경우 본 사업에 얼마나 가입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것 관련 자료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담당 과는 시스템 미비로 별도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전반적으로 복지부에서 사업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백종현 위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또 긴급복지, 기초연금, 모자보건 사업의 예산도 문제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량을 면밀히 추계하지 않았거나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하여 생긴 부족분을 메꾸거나 감액하기 위해 급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예산에 대한 복지부의 단일한 인식이 드러난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2023년 결산심사 당시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종현 위원 이처럼 매년 중요성이 커지는 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도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단순히 집행 실적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중요도를 잘 감안하셔서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 후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규홍 장관님과 이기일 차관님, 박민수 차관님께서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책임지시느라 보여 주신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리에 계시더라도 계속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나누고 현장감을 살려서 협력의 가교 역할을 계속해 주시라고 당부 드리고요.

세 분께서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능력이 부족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의료공백 해소 등 또 많은 난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긴급한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새 정부 들어서 첫 상임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규홍 장관님, 이기일 1차관님, 박민수 2차관님 그리고 모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27년 만인가요—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미래세대의 저항이 컸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간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 냈고 또 오랫동안 현장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도 했었고 또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탓이 맞지요.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지금 정부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전히.

비판만 할 때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책임감 가지고 현장에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루어 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저는 비록 야당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견제 권력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강력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법언이 있듯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지위가 그래 왔듯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전문성이, 장관님 차관님 전문성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건승하시길 또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복지부 추경의 목적이 정부 발표안을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추경이 세수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하는 빚 추경입니다. 그래서 현세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래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마찬가지로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정위탁 지원, 학대피해아동 지원,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반영되지 못했고 안타깝게 이번 추경에도 또 빠졌네요.

반면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 넘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지급을 위한 부수 예산이 복지부 추경에 49억이나 편성돼 있습니다. 경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다면 사실상 49억은 필요가 없는 돈이지요. 정부 예산이 개인 금고도 아니고 당선 축하금처럼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49억 원을 왜, 이런 거액을 들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에도 저 같은 이런 염려를 하는 모 국민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국가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라고 오히려 국가에 기부를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런 법안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마음이 힘든 게, 저출산 정책 중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위기임산부 지원하고 보호출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 19일 날 시행됐는데 차관님, 예산이 100억 정도 됩니까, 한 해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조금만, 한 1분만 더 주세요, 이것만 마무리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하루에 한 명을 살리고 있거든요, 새 생명을.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난 5월 말까지 한 300명 정도의 새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상담사가 퇴근을 해도 늘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온콜을 대기 중이지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안 쓰고…… 이런 데 저는 추경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아동발달계좌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없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주는 것보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정부가 1 대 2 매칭해서, 나중에 24세 되면 목돈 한 5000만 원 정도도 가능하거든요.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대상자에게. 더 알려서 이것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더 넘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했지만 더 좀 적극적으로 하기 바라고 특히나 예산 운운하는데,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현장의 기초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행안부와 협의 좀 해서 감액할 게 아니라 다 쓰여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모든 위원님들의 기대와 달리 2차 질의를 하시겠다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지아 위원님 2차 질의 하시지요.

○**한지아 위원**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돼서.

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존 편성된 2026년도 R&D 예산 초안을 대폭 수정하고 이를 위해 6월 30일로 정해진 법정 제출기한을 뒤로 미루는 입법까지 고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이 사이클을 혼드는 것처럼, 상당한 혼선과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벌써부터 진행 중인 연구들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분야 R&D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R&D야 복지부가 의견을 내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좀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위원님들 질의 마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가 1년 4개월 넘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을 방문해보면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전에 저희 상임위에 출석하셔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본인이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 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박주민 박민수 차관님의 경우에도 이런 의료대란, 의료공백에 책임이 있는 분으로 지목돼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유감 표명도 하셨었습니다. 여전히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예.

○위원장 박주민 조규홍 장관님 그리고 박민수 차관님 그리고 이기일 차관님 포함해서 장차관님들 아마 지금 자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실 것 같은데 혹시 국민들께 의료대란 관련돼서 유감 표명을 한 번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 환자분들 그다음에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료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공의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9월 30일 날 제가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지금 의료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박민수 차관님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저는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 1년간 의대생들 그리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제가 위원장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방문한 현장이 서울대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모발이식 수술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극심한 통증을 참고 제가 갔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청문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교육위와의 연석청문회, 추계위법 통과 이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 또 토론회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생, 전공의, 의협 관계자분들, 교수님들 많이 만나 왔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더 지속되기보다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뜻을 같이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복지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과정이나 절차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분들, 정부를 좀 믿고 그리고 국회를 좀 믿고 이제 현장과 학교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 좀 다양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공의 관련 예산 감액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전공의분들의 좀 더 많은 숫자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전에 파악이 됐기 때문에 대체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강선우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선민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백종현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서명옥 위원님, 서미화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장종태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 최보운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7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 위원(22인)

강선우 권성동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백종현  
서명옥 서미화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최보운 한지아

#### ○출장 위원(1인)

백혜련

#### ○청가 위원(1인)

서영석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운

전문위원 오세일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박민수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정책기획관 임호근  
복지정책관 배경택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공공보건정책관 정통령  
정신건강정책관 이상원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추경호	권성동	국민의힘	2025. 5. 2.

**○의안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7.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3월 18일 회부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8.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이상 3건 3월 19일 회부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9.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이상 8건 3월 20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4)

이상 2건 3월 2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6)

이상 6건 3월 24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2)

이상 3건 3월 25일 회부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5.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9)

3월 26일 회부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5)

이상 2건 3월 27일 회부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1)

이상 2건 3월 28일 회부됨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8.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이상 7건 3월 31일 회부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31.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0)

이상 4건 4월 1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4월 2일 회부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이상 6건 4월 4일 회부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5)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4. 4.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9)

이상 3건 4월 7일 회부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7.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1)

이상 2건 4월 8일 회부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4월 9일 회부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9.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이상 3건 4월 10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0.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0)

이상 5건 4월 11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7)

이상 2건 4월 14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4.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4월 15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5.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이상 3건 4월 16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2)

이상 2건 4월 18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3)

이상 3건 4월 21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9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1.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0)

이상 3건 4월 22일 회부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8)

4월 23일 회부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5. 4.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47)

4월 24일 회부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4. 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1)

이상 5건 4월 25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7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8.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3)

이상 4건 4월 29일 회부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9.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이상 2건 4월 30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5)

이상 3건 5월 1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7)

이상 4건 5월 2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7)

**아동기본법안**

(2025. 5. 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9)

이상 4건 5월 7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7.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4)

이상 2건 5월 8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8.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이상 3건 5월 9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5월 14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5.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9)

이상 2건 5월 16일 회부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2)

이상 3건 5월 21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9)

이상 2건 5월 23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3.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9)

이상 2건 5월 26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30.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1)

이상 2건 6월 2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0.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이상 2건 6월 1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9)

이상 2건 6월 12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전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2.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5)

이상 3건 6월 13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2025. 6. 13.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이상 7건 6월 16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6.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0)

이상 2건 6월 17일 회부됨

**돌봄기본법안**

(2025. 6. 1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이상 5건 6월 18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8.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1)

6월 19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0.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이상 2건 6월 23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이상 2건 6월 24일 회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24.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3)

이상 2건 6월 2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4)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3. 20.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4)

이상 2건 3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2025. 3. 20.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6)

3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21.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3)

이상 2건 3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21.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5)

3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31.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6)

4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0)

4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5. 4. 4. 김기현 의원·김태선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4)

4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1.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9)

이상 2건 4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8)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5. 5. 1.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8)

이상 2건 5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2025. 5. 7. 김예지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번호 2210377)

5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13.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1)

5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5. 22.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0)

5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7.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0)

6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6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5. 6. 24.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5)

6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안 철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7.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3)

4월 3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30.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2)

6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관련의안 철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12.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5)

4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5. 3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3)

4월 24일 발의자 철회 요구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6월 2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77)

####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4)

####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 6.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95)

이상 3건 6월 23일 예비심사기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정 30분 전까지로 지정됨

#### **○청원 회부**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2025. 3. 30. 김현아 외 53,2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5)

3월 31일 회부됨

#####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4. 2. 박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4월 4일 회부됨

#####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

(2025. 5. 30. 이주혁 외 51,9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2)

6월 2일 회부됨

#### **○보고서 송부**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

(2025. 5. 30. 감사원장 제출)

#####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2025. 5.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 **2025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2025. 5. 30.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이상 3건 6월 2일 송부됨

####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10	-	17	3	2	48
식품의약품안전처	-	5	-	3	1	20
질병관리청	-	-	3	1	1	3